

# 전북 노인일자리센터 사업 가시화

### 김광수 의원, 끈질긴 노력 끝 예산확보 결실 맺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사진)이 '예산확보전문가'답게 끈질긴 노력과 치밀한 전략으로 연금전문대학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성공했다.

이로써 전북지역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이 우수한 연금전문대학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전문대학원 설립'과 노인적합직종 직업훈련 및 직업체력, 노인취업정보망 구축을 통한 취업연계 등을 지원하

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사업(총 사업비 240억원)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특히, 연금전문대학원 연구용역비(2억원) 확보는 서울·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를 꿈꾸는 전북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만큼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사업 또한, 노인 개인연령표수 등 835만원, 노인경제활동 참여율이 31.0%로 낮은 전라북도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노인빈곤 세계 골짜기가



라는 오명을 탈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연금전문대학원·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서 기재부의 예산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원내 지도부와 기재부·전북도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정지력을 발휘했다는 후문이 다.

김광수 의원은 "연금 전문대학

원·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사업'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 속에 좌절 직전까지 갔지만, 지난해 예산안 조정 소위 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끈질긴 노력과 치밀한 전략 끝에 예산을 확보하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금융 산업과 어르신들의 일자리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로 지역경제, 민생경제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지역의 균형발전, 서민의 풀뿌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국가식품클러스터 국제 심포지엄.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 익산시가 주최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식품산업과 4차 산업혁명 국제 심포지엄'이 6일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한국-독일 산학연관 전문가들의 모습이다.

## “미래 농생명 산업 투자 확대”

### 도의회 예결위, 전북도 내년 예산안 심사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영일·순창)는 6일, 전북도의 2018년도 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최명철위원(전주4)은 2017년 1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농민단체 지원 사업이 내년도에 증액되어 요구된 것과 관련하여 사업의 성과가 아직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농업인단체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단체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을 지적했다.

최영규위원(익산4)은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전북은 관련 농생명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스마트 팜, 농업용 드론 산업 등 미래 농생명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양성빈 위원(장수)은 농촌관광거점 마을 육성사업관 관련하여 군산, 임실이 사업을 포기하며 전년 대비 37억원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며 삼각

농정의 핵심산업이며 공약산업인 만큼 내실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최인정 위원(군산3)은 장애인콜택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정부 지침에만 의지하지 말고 장애인의 불만요인인 위탁업체의 인권침해, 365일 24시간 운행, 요금 인하 등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허남주 위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북개발공사가 발주하는 통신사업을 타 시도 통신업체에게 맡아 시행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며 최근 통신관련 발주공사 내역을 요구했다.

/김진성 기자

### 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개소 피해접수·사후관리까지 지원

전북도가 6일, 전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구제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장애인복지법의 개정(2017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중앙과 17개 광역시도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에서는 지난 7월 3일 공포를 통해 '전라북도지체장애인협회'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기관으로 선정하고, 그간 사업계획 확정, 협약체결 및 시설 리모델링 등을 거쳐 이번엔 개관식을 갖게 됐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도내 장애인 권익 침해의 신고·접수와 현장조사, 응급조치, 피해 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까지 One-Stop 지원체계를 갖추고,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전북도 김승일 행정부지사는 축사를 통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출범을 계기로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내에서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고, 장애인복지와 인권보호가 한 단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새만금개발청 예산 2000억원 돌파

### 올해보다 1020억원 증가한 2233억원 확정 세계 잼버리대회 기반시설 구축 여건 마련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이 올해 1,213억 원보다 84.1%(1,020억 원) 증가한 2,233억 원으로 확정됐다고 6일 밝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반시설 구축 2,042억 원 ▲용지조성 10억 원 ▲투자유치 등 기타 181억 원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 새만금 개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023년 세계잼버리 지원과 속도감 있는 내부개발 등을 위해 동서도로 867억 원, 남북도로 1단계 958억 원과 함께 신규 사업인 남북도로 2단계 192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공공주도 용지 매립사업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에 10억 원을 투입하여 타당성 검토와 선도 사업 구체화 작업을 진행한다.

이밖에 투자유치 활동 및 홍보 22억 원, 간척사박물관 건립 5억

원, 문화예술 기반조성 2억 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 7억 원 등이다. 한편, 국토부, 해수부 등 관계 부처에서 수행하는 2018년도 새만금 사업 총예산은 2017년 예산 6,548억 원보다 25.2% 증가한 8,198억 원으로 편성됐다.

신항만(해수부)은 진입도로 및 호안 축조사업(2018 착공)을 위한 예산 309억 원이 반영되고, 광역교통망의 하나인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국토부)는 사업추진(2018.3월 착공)을 위한 예산 836억 원이 투입된다.

공공주도 매립사업의 지속적,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전담 개발공사 설립비,준비비 510억 원(국토부)과 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조사 5억 원(국토부)도 확보됐다.

/김진성 기자

## 황현 도의장, 한센인 복지증진 기여 공로 인정

###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



복지협회 도지부장을 맡아 한센인 목욕차량지원, 요양복지시설 개보수 등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증진을 위해 정책·지원 사업 및 자원봉사를 꾸준히 실천해온 공로를 받았다.

/김진성 기자

한센인의 인권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황현 전북도의회의장(사진)이 대한민국 한센대상 특별상을 받았다.

사)한국한센총연합회는 5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2017 대한민국 한센인대회를 갖고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을 열었다.

황 의장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한센

## 도내 공공기관 직무인턴 85명 모집

### 미취업 청년대상으로 7일부터 13일까지 접수받아

전북도는 7일부터 13일까지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인턴 참여자 85명을 모집한다.

공공기관 직무 인턴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전공분야의 공공기관에 배치하여 인턴경험을 통해 업무역량을 키우고 진로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이다.

경험이 스펙이 되는 취업트렌드에 적합한 인턴십 운영으로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 확대를 통한 실무형 인재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진성 기자

인턴은 2018년 1월 22일부터 2월 20일까지 공공기관의 실무부서에서 전공 관련 지식,기술 분야의 일을 맡게 되며, 임금은 시간당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 근무기간 중 산재보험에 가입된다.

신청자격은 도홈페이지-배너(공공기관 직무인턴 모집) 클릭하여 참고서식을 작성,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며 최종 선발 결과는 12월 중순경 도 대학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를 통해 발표된다.

/김진성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